기아서 3조 투자… 전남광주, 미래모빌리티 거점 도약

기아, 2029년까지 3조 투자
혁신기술 기반 미래차 생산 구축
PBV 중심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원격운전 기술 실증
지역 자동차 산업 미래차 전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6일 오전 기아오토랜드 광주에서 열린 'PBV 기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협약식'에 앞서 본관 로비에서 PBV 관련 사업설명을 듣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미래모빌리티 제조·실증 거점으로 도약한다. 기아가 2029년까지 전남광주지역에 약 3조원을 투자해 혁신 제조기술 기반의 미래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PBV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전남광주가 '미래차 제조 및 실증 거점'으로서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기아, 전남대학교, GIST(광주과학기술원)와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PBV(Platform Beyond Vehicle : '차량 그 이상의 플랫폼' 기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를 활용한 기술 실증과 사업화 협력을 통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전용 차량 개발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PBV 셔틀 서비스 실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 실증 ▲물류·여객 등 목적에 따라 차량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실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교통·물류 서비스에 적용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업무협약과 투자계획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자는 내연자동차 중심이었던 지역 자동차 산업을 전동화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생산 기반과 지역의 인공지능(AI)·첨단산업 역량을 연계해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엠코코리아의 투자에 이어 기아의 대규모 투자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첨단 전략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가 40여년만의 통합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결정해 주신 기아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시장 미래차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도록 특별시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부품업체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전남광주를 글로벌 미래차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경북도, 의성 식품산업에 455억 유치

도내 첫 식품 전문 산단 준공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

경북도가 의성에 식품산업 투자 455억 원을 유치하고 도내 첫 식품 전문 산업단지인 의성바이오푸드밸리를 준공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의성바이오푸드밸리에서 열린 '미래 신성장 산업 비전 선포식'에서 산업단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씨위드, ㈜오그래 농업회사법인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업은 총 455억 원을 투자해 8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의성바이오푸드밸리는 22만5,844㎡ 규모로 조성됐으며,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50실 등을 갖춘 워라밸복합문화센터도 마련됐다.

이날 총사업비 145억 원 규모의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식도 열렸다. 센터는 세포배양식품의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한다.

㈜씨위드는 200억 원을 투자해 세포배양식품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46명을 고용한다. 2027년 연간 400톤 규모의 생산체계를 확보한 뒤 2028년 이후 1,200톤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오그래 농업회사법인은 255억 원을 투자해 단백질 식품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37명을 고용한다. 2027년까지 성주에 있는 기존 1·2공장을 이전·통합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내 최초의 식품 전문 산단 준공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착공을 계기로 의성을 국가 식품산업의 핵심 테스트베드이자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경북이 세계적인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주시, 732억 신농업혁신타운 본격 가동

과학영농실증교육관 등 개소

경주시가 총사업비 732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신농업혁신타운의 주요 시설을 개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6일 내남면 상신리 신농업혁신타운에서 과학영농실증교육관과 귀농귀촌웰컴팜하우스, 스마트농업 교육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농업혁신타운은 2018년부터 내남면 상신리 일원 21만여㎡ 부지에 조성됐다. 지난 9월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마쳤으며, 이번 시설 개소로 농업기술 연구·실증부터 교육과 현장 지원까지 연계하는 기반을 갖췄다.

과학영농실증교육관은 171억 원을 들여 연면적 4,933㎡,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다. 농산물안전성 분석실과 토양분석실, 초유은행 등을 통해 농업 현장의 분석과 기술지원, 교육을 담당한다.



6일 경주시 내남면 신농업혁신타운에서 열린 주요 시설 개소식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귀농귀촌웰컴팜하우스는 79억 원을 투입한 연면적 1,610㎡, 지상 3층 시설로, 스마트귀농지원센터와 체험실습장, 체류시설 10호 등을 갖췄다. 체류형 농촌체험과 교육·상담으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한다. 38억 원을 들인 스마트농업 교육센터에서는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충남도, 3689억 디스플레이 사업 예타 통과

아산 탕정에 국가연구거점 구축

충남도가 총사업비 3689억 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낸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국의 거센 추격에 대응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과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도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7년간 국비 2789억 원, 지방비 487억 원, 민간자본 413억원 등 총 3689억원을 투입한다.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 9104㎡ 부지에 연구지원동과 클린룸동, 유틸리티동 등 연면적 8000㎡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연구시설 3개 동을 건립하고, 연구장비 56종 56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구시설 구축에는 1736억 3000만 원, 기술개발에는 1952억 4000만 원이 각각 투입된다. 내년 1분기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2분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초고해상도·초고색재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나노 발광다이오드(LED),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AI 기반 디스플레이 제조기술 등이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용인시의회, 쌍둥이 판다에 감사장 전달

12월 중국 귀환 앞두고 감사 전해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장은 6일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판다월드를 방문해 오는 12월 중국으로 돌아가는 쌍둥이 자이언트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자매에게 '시민행복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 이송을 앞둔 판다 자매에게 용인시민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 의장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송규종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이사, 강철원·송영관 사육사 등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강철원·송영관 사육사의 안내로 아빠 '러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막내 '슈바오'를 만난 뒤 감사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루이·후이바오 자매에게 '특례명예시민 증서'를, 막내 슈바오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장 의장은 루이·후이바오 자매에게 시민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선사한 데 대한 감사와 애정을 담아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은 두 판다의 탄생부터 성장을 함께한 강철원·송영관 사육사가 대신 받았다.

장 의장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아쉬워하고 있다"며 "언니 푸바오에 이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소중한 추억과 행복을 선사한 두 판다에게 용인시민의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농업환경 보전 우수사례 첫 수상

김해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6년 농업환경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가 이 대회에서 수상한 건 처음으로, 올해 경남 수상기관은 김해시가 유일하다. 시는 '분석에서 현장까지, 데이터로 만드는 안전한 김해농업'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매년 토양과 농업용수를 분석해 쌓은 데이터를 비료사용처방과 농가 현장기술 지원에 활용한 내용이다. 시는 농가별로 분석 결과를 전달하고, 축적한 자료를 종합해 지역별 토양 양분 상태와 변화 추이를 살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해군·방사청과 해양 AI 협력

부산시는 대한민국 해군, 방위사업청과 6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본원에서 '해양 및 함정사업 인공지능 전환(AX)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해군·해병대 국방 AX 거점 개소식, 해양·국방 AI 비전 선포식과 함께 열렸다. 이날 세 기관은 실제 해양·국방 환경과 데이터를 활용해 해양·함정사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데이터 센터 등 해양 분야 AI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김재남 기자 metrobusan99@

울산시
中 해상풍력 생산기지 시찰

울산시는 김상욱 시장이 지난 6일 중국 광둥성 양장시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생산기지를 시찰하고 위진푸(余金富) 양장시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밍양그룹의 초청으로 방문한 김 시장과 지역 기업 관계자들은 헬기를 타고 양장 칭저우 해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16.6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설비를 둘러봤다. 방문단은 이어 밍양그룹 양장 생산기지에서 터빈의 핵심 구성품인 나셀과 블레이드(날개) 제조·조립 공정 및 대형 풍력 설비를 생산해 항만으로 출하하기까지 공급망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았다. /울산=박현철 기자 metrobusan88@

남양주
왕숙첨단산단 관리계획 고시

남양주시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산업단지의 관리 방향을 비롯해 입주 대상 업종, 산업.지원시설용지의 운영 기준,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 절차 등이 담겼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기업 입주와 운영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를 부여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남양주(경기)=김용택 기자 mk4303@